

공공미술은 어려워

이 쪽방은

땅 속으로 내려온 곳.

나의 무덤,

나의 관.

나는 무덤과 함께,

관과 함께

떠다닌다.

휘~잉

(아, 이런 고독의 제스처....안조아. 이걸 근대적 자아상, 그래.. 벗기 힘들지만 벗어버리고픈 나의 예술가적 자아상이야.)

공공미술 활동가로 거듭나기는 어려워

작업실..., 그래, 그 밀실,

고독한 예술가의 영혼이 진저리치는

그 장소를 포기, 공개, 공공화하기가 어려워.

그곳에서의 꿈은

저릿하고도

달콤하지.

그리고, 아~~태평동

그 딱딱한 고갯길을 오르기가 힘들어.

(텐장 ..더워 ...)

적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호감인 그 분들의 눈빛을 뚫고

그 살의 주름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워.

“새로운 개념의 작가상”을 내면화 하기가 넘 어렵워.

예술가의 신화에

너무너무 깊이깊이 중독돼 있어서.....

작업실이 그리워.

하얀 입방체의 공간이 그리워.

공공미술이 풍년이다. 정부차원에서조차진해서 시범적 공공미술 사업을 벌이고있고 지자체들도 공공미술에 눈을 돌리고있다. 성공적 공공미술 사례들과 더불어 공공미술에 대한 담론이 그 어느때 보다 풍성하다. (나만의 착시 현상일까?)

국회에 계류중인 예술 진흥법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어야겠고 좋은 공공미술 활동가들도 나와야겠다. 제한된 우리의 미술시장에서 미술가들이 작품을 팔아 작업비와 생활비를 벌기란 참으로 지난한 일이기때문에 공적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공공미술에 미술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공공미술도 많이 진화했다. 관객 참여(public access)와 장소 특정성(site specific)은 기본 사양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미술가들은 “새로운 개념의 미술가 상”을 내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듯 보인다.

얼마전 어느 공공미술 제안 설명회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 온 제안 설명자는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분은 예술의 공공화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 일종의 지역 보건의사가 되어 지역에서 살고있는 “공공의술 활동가” 였다.

그 지역은 드물게보는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으로서 개발의 압력을 힘겹게 버텨내고있었다. 그 분은 확신에 찬 어조로 미술가들에게 외쳤다. 미술가들이여, 우리 마을로 들어오라. 우리 마을은 미술가를 필요로하고 이제 (의사 다음으로) 미술가를 키우려하고있다고...이 분이 부르짖는 그 미술가는 바로 “새로운 개념의 미술가”임이 분명했다. 미상불 모두에게 감동적이었을법한데 그 발표회 후일담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주민이 부르짖는 미술가들이 와야하지않느냐는 말투가 당혹스러웠으며 미술가는 주민이 원하면 색칠 해주고 만들어주는 쟁이는 아니지않느냐는 반응이었다. 또 한 친구는 그 말인즉은 옳지만 “지역의 미술가로 남는 것”이 견디기 힘들것같다는 반응이었다. 이것은 여전히 근대적 신화 속의 미술가상에서 벗어나지못한 소이연이다. 사실 나 또한 성남 프로젝트2에 참여하면서 느끼고있는 동일한 갈등을 이 글을 쓰며 고백하는 중이다.

그러나,...우리 이제 좀 더 다같이 “진화하자”라고 말하고싶다. 새로운 개념의 미술가상을 머리에 그려보자라고 말하고 싶다.

우선 자기안에 있는 신화, 이제 자본과 제도에 의해 형해화한 “예술가 신화”를 좀 손보아야 하지 않겠나? 아트페어에 내기위해 밤을 밝히며 작업하는 작가를 보며 오히려 측은지심이 생겨야하지않겠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하여도 또다른 어려움이 남아있긴하다.

체제는 공적 기금을 풀어서 공공미술의 이름으로 그 모순을 가리우는 일을 여전히 도모할터이고 미술가들은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community art”의 이름 아래 아무런 의심없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일을 상상해보기란 매우 쉬운 일이다. 공공미술이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보듬는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표방하고있다하여도 여전히 우리가 질문 해 보아야하는 것은 이것이 체제의 모순을 가리우는 가증스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시켜주는 것 뿐 아니겠나 하는것이다.

체제의 모순이라...체제의 모순이 뭘까? 능력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FTA, 이런 것들? 그리하여 초래되는 소위 사회 양극화 현상?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위한 대안적 정치, 경제, 문화적 모델의 모색... 이런것?

물론 이런것들이 겉으로 들어난 체제의 모순이리라. 그러나 예술가들의 손길은 이 “체제의 모순”을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더듬어야하리라. 자기자신의 몸을 투여하여...눈으로가 아

나라 축각으로, 낌새로..더듬어야하리라..

공공미술의 실행에서 나중에 꼭 나오는 비난성 지적은 미술가들이 어느 장소에 개입하여 일정기간 사업을 벌인후 빠져나와버린다는, 이른바 “치고 빠진다” 는 비난이다. 다시말해 자기의 몸이, 삶이 투신되지않고 머리만, 관념만 잠시 개입한다는 비난이다. 이미 체제에 길들여진 그의 몸, 삶의 습관이 갱신 되지않고는, 말하자면 그 누구의 말대로 자기자신을 “엡젝트”화 하지않고는 공공미술가, 새로운 개념의 공공미술가로 거듭나기 어렵다.. 휴~어려워...

일부 공공미술가들은 사회가 그들을 제대로 금전적으로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있고 또 그것은 사실이다. 공공미술을 발주받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술가의 (정신)노동비가 하나의 지출 항목으로 이제 겨우 들어가기시작하는 추세이나 그것도 타 임금 노동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미술이 정원공사,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고 공공미술일 때, 아직은, 아니면 앞으로도 쭉~~옥,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평은 유보되어야하지 않을까? 금전적 부족을 대체해주는, 문화자본의 소유자로 만족 해야하지 않겠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맘만 먹으면 자기 시간을 자신이 스스로 분배해서 쓸 수 있는 시간권력의 소유자들 아닌가?

이렇게 쓰면서 나는 부지부식간에 예술, 혹은 예술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말았는데 그것은, 예술가란 여전히 “상징계와 상상계의 경계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자”이며 예술은 여전히 이런 예술가들에 의해 발현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우리 AFI에 참여하는 모든 스탭들 , 그리고 작가들께서는 조직위원장으로서는 저의 이런 글에 동의하시는지?

만일 아니시라면 AFI는 조직위원장 잘못 뽑았다